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영어영문학과	이름	최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College Station, Texas
파견대학	Texas A&M University	파견기간	2018.8 ~ 2019.5
귀국여부	네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College Station은 텍사스에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기본적인 시설들만 있고 거의 학교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학교는 굉장히 커서 셔틀버스 수가 많고 자전거나 보드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학교 시설들은 신식인 건물도 많고 깨끗합니다.</p>
2018-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Shakespeare – 대형강의 입니다. 엄청 두꺼운 책 하나로 수업하는데, 책 말고는 다른 수업자료들을 안 써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교수님이 앞에 서서 한시간동안 말만 하세요. 시험은 두 번 있고, 과제는 매주 한번씩 있습니다.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100단어 이내로 글을 써서 올리는 겁니다.</p> <p>Survey of English Lit 1 – 시,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영문학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필기를 하셔서 이해하기 비교적 쉬웠습니다. 시험은 총 두 번 있고 과제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p> <p>Women writers – 여성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것도 백명정도 듣는 대형강의 이고 지정자리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피피티를 사용하시고 그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주셔서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에세이를 쓰는 과제가 두 세번 정도 있고 시험도 두</p>

	<p>번 정도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에세이 길이는 500단어정도로 딱히 길지 않아서 부담이 없었습니다.</p> <p>Brit Novel 1870-present – 가을학기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칠판에 필기는 해주시지만, 교수님이 아무런 자료도 안 쓰시고 교수님 말씀이 잘 안 들렸습니다. 시험은 한번 보고 기말은 에세이 2000단어입니다.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거의 매시간마다 그룹을 지어서 토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친절하셔서 좋았지만 가장 비추하는 수업입니다.</p>
2019-1학기 수업	<p>Contemporary & Modern Drama – 영미극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영화를 통해 작품을 배워서 나름 흥미로웠습니다 (진짜...?). 퀴즈는 매주 있고 시험은 두 번 있습니다. 수업 종종 그룹 토의 시간이 있습니다.</p> <p>Beginning Spanish 1 – 미국에서 제일 열심히 들었던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들을 만했거든요 정말 기초적인 스페인어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시험은 쓰기 시험 한번, 파트너와 말하기 시험 두 번이 있습니다. 과제도 몇 개 있는데 전혀 버겁지 않습니다. 발표점수도 꽤 중요해서 수업시간에 손들고 발표를 해야 하고, 그룹을 짓거나 파트너와 함께 스페인어를 연습해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 나와서 말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걸 혐오하는 성격이지만 나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이 너무 너무 너무 비쌌습니다. 약 20만원 정도인데,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온라인 학습과 연동되어있어서 안 살 수가 없습니다 ㅜ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공부하는 중입니다.</p> <p>Medieval English Lit – 중세 영문학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하루에 총 두 번 퀴즈를 내주셔서 종이에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퀴즈 답은 한 두 단어 정도로 쉬운 편입니다. 시험은 총 두 번, 과제는 세 번 정도 있습니다.</p> <p>History of US –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대형강의 입니다. 시험은 총 세 번 있고 퀴즈도 서너 번 정도 있는데 다 객관식이라서 부담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문제가 종종 헛갈려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p> <p>Intro to Psychology – 온라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퀴즈가 굉장히 많지만 모두 객관식이어서 힘들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p>

	수업을 들을 때 실제로 심리학 실험에 참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실험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실험체가 되는 겁니다. 이수 점수를 20점 정도 채워야 하는데 이 점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시험을 아무리 잘 봐어도 에프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중간에 드랍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실험 참여를 한번도 못했거든요. 껄껄 자율인 줄 알았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사실 교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종종 유학생들을 위한 파티나 강의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저는 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ISMA라는 국제학생 멘토멘티 동아리가 있는데 이걸 많이 도움됐습니다. 일대일로 유학생과 현지 학생이 짝을 지어서 각자 알아서 활동하는 건데, 얼마나 좋은 멘티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멘티를 만나서 같이 멘티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마트도 항상 같이 갔습니다. 교환학생 담당자 분들도 친절하십니다. 저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 해주시고 메일 답장도 빠릅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텍사스는 남부에 위치해 있어서 더운 날이 길니다. 햇빛이 강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고 한국보다는 덜 습해서 많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겨울도 패딩 입을 정도의 추위가 아니었지만 제 작년 텍사스에는 눈이 펄펄 왔을 정도로 많이 추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겨울 옷도 좀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챙겼던 옷 중 가장 두꺼웠던 옷은 안에 털 달린 후드집업이었습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주로 학생들이 사는 도시이다 보니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퍼스 안도 안전해서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집에 돌아가도 괜찮습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Hart Hall이라는 기숙사에서 일년동안 생활했습니다. 가장 싸고 가장 낡은 기숙사지만 캠퍼스 중앙에 있어서 웬만한 건물들과는 가까워서 편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비가 우리 학교에 비해서 비쌉니다. 이게 가장 싼 기숙사지만 한 학기에 200만원 정도... 제일 비싼 기숙사는 거의 500만원 가까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캠퍼스 밖 세어하우스에서 삽니다. 저도 한 학기만 기숙사에서 살고 다음 학기에는 캠퍼스 밖에서 살려고 했는데, 기숙사 계약이 1년이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혹시 학교 밖에서 살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처음부터 기숙사를 신청하지 않고 미리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어하우스 월세는 케바케지만 관리비 포함해서 보통 60-70만원정도 하고 보증금 같은 건 없습니다.</p>
식사	<p><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i> <i>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가을 학기에는 거의 사서 먹었는데 봄 학기 때는 기숙사에서 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기숙사 주방이 더럽고 사람도 많아서 저는 라이스 쿠키를 사서 방 안에서 밥, 파스타, 라면 등등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이런 조리 도구를 방 안에서 이용하고 싶다면 룸메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식당 중에 Panda Express랑 Chick Fil A 추천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습니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College Station에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시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셔틀버스가 많아서 불편하진 않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캠퍼스 밖 셔틀버스는 꼭 학생증을 보여줘야 탈 수 있음). 만약에 국제 면허증이 있다면 차를 빌려서 운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가려면 꼭 차가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카페를 갈 때에도... 아니면 차가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최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차가 있어서 친구만 잘 사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편도 x 2 = 약 200만원	
Fees	<p><i>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i></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없음
보험료	<p><i>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i></p>	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고, 두 학기 합쳐서 약 200만원
숙소	기숙사 학기당 약 200만원	
식비		<p>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만들어서 먹는다면 식비 정말 아낄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식당에서 사 먹는다면 한 끼당 약 7달러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장을 봤는데 장을 한번 볼때마다 30달러 이내로 들었습니다. (많이 먹는 편 아님) 외식비는 비싸지만 마트 물가는 한국과 비슷합니다.</p>
교통비	0원	
책값	두 학기에 총 30만원 정도	책값이 꽤 비쌉니다. 안 산 책들이 많아서 그나마 30만원이고 만약

		수업에서 요구하는 책들을 다 산다면 거의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기타1		
기타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1. 책 값이 비싸기 때문에 책을 사는 것 보다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이나 Chegg 사이트에서 책을 빌릴 수 있고, 만약에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피시가 있다면 이북을 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업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문학을 배우는 수업을 많이 들어서 한 수업에 책 여러 권이 필요한 수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책당 2-3일 밖에 배우지 않아서 책이 없어도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물론 교수님이 다른 수업 자료를 안 쓰신다면 불편하겠죠. 한 책을 한 학기 내내 쓰는 수업이라면 구입하거나 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수업 syllabus를 꼼꼼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를 다닐 때 수업 계획서를 제대로 본 적이 한번도 없는데 미국에서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수업과 시험 일정, 교수님이 원하는 수업태도, 필요한 책, 시험 방식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중간고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교수님이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yllabus를 보고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우리 학교와 달리 겨울방학 때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유학생들을 위해 따로 다른 숙소를 제공해준다고 들었지만 이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여행 가는 것을 추천하고 짐은 빼지 않고 기숙사에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번호키가 아닌 열쇠를 주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10만원... (기숙사마다 가격 다름) 내고 다시 키를 받아야합니다. 경험담입니다 ^^ 열쇠 복제는 불법이라 룸메 열쇠 복사하면 안됩니다.
4. 27번 버스를 타면 마트, 한식당, 쇼핑몰 갈 수 있습니다. Texas A&M 앱을 깔면 버스 위치, 시간 등을 알 수 있어 유용합니다. 참고로 학교 주변에서 몽촌이라는 한식당이 가장 좋았습니다.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5. 학교 내에서는 아무도 안 꾸미고 다닙니다. 화장 전혀 안하고 옷도 학교 티, 레깅스 등 편한 옷만 입으며 가방은 무조건 다 백팩 맵니다. 물론 뭘 어떻게 하고 다니든 본인 자유지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면 옷은 포멀하게 입거나 단정하게 입습니다.
6. Group me라는 어플을 까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 경험상 사람들이 카톡과 같은 앱을 쓰지 않아서 (보통 그냥 문자나 스냅챗 이용함) 그룹미를 통해 단톡방을 만들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주로 수업마다 톡방이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초대받음) 동아리나 기숙사 같은 단체 생활이 필요한 경우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7. 영어로 이메일 쓰는 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 쓸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와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글에 How to write email to professor 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구글에 해당 과목 이름과 Quizlet을 쳐보세요 (앞에 TAMU를 붙인다면 정확도 업!).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시험 자료들을 퀴즈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9.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 카톡 아이디 gmlidus9042 아니면 네이버 이메일로 물어봐도 됩니당~~~ 환영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일단 수업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영문과 전공이고 우리 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수업이 힘들었습니다. 성적표에도 처음 보는 알파벳들 많이 뒀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딱 어떤 방법으로 미리 영어 공부를 해가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칩니다... 특히 저는 그룹 디스커션 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수업을 이해 못해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같은 그룹 학생들에게 도움을 한번도 준 적이 없거든요. 침묵만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활동을 많이 안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사귀기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들도 우리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했었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파견 전에 우리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먼저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텍사스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외향적인 성격이라면 수업이나 파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어가 눈에 띄게 늘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영어를 배우기만 하고 실제로 쓸 일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매일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영어들도 고칠 수 있었고, 원어민들이 실제로 쓰는 영어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누가 영어로 말을 걸면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내면서 힘들었던 점은 수업과 한국음식이었습니다. 이 두개 말고는 다 좋았고 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아마 잘 적응한 편 같지만, 아마 9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가기 전에 열심히 준비하고 설레어 하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더 가고 싶을 정도로 저에겐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 교환학생 준비하시는 분들 다 조심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학교 버스



The state fair of Texas



캠퍼스 사진



Ring dunk party